

# 초등 국어과 교수 학습 모형 개발 연구\*

-쓰기 영역을 중심으로

원 진 숙 (서울교대)

## <차례>

- I. 서론
- II. 쓰기 기능의 본질과 특성
- III. 쓰기 교육의 내용과 방법
- IV. 워크숍 중심의 쓰기 교수 학습 모형
- V. 결론

## I. 서론

본 논문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국어 교과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7차 교육과정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어과 교수 학습 모형 개발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과 교육의 성격을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정보사회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국어 생활을 영위하고 미래지향적인 민족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며,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하기 위한 교과”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어과는 국어가 사용되는 맥락과 목적과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 사용 양상과 내용을 정확하고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사상과

---

\* 이 논문은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정서를 효과적이고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 교과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 국어과 교육의 핵심적 과제가 학습자의 '창의적인 국어 사용 능력 향상'에 있음도 분명히 하였다.(이인제 외 1998: 13)

학습자의 창의적인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면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는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 개인의 능력이나 흥미, 필요나 요구, 인지 및 학습 양식, 학습 속도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모형<sup>1)</sup>의 개발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어과 교수 학습 모형을 개발하는 작업은 물론 국어과 교수 학습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국어과 교수 학습 모형은 국어 교육 현상에서 도출되는 현상을 규제하는 개념 혹은 원리들의 체계로서 예견된 교수 학습 조건하에서 의도한 교수 결과를 최대한 성취해 낼 수 있도록 수많은 변인들을 조직하는 현실적인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국어과 교수 학습 모형의 개념을 '국어과의 각 하위 영역에 관한 교수 학습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교수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수 전략 및 학습 전략을 통합하여 정형화해 놓은 수업 과정이나 절차'라는 의미로 정의하기로 한다. 이 개념 속에는 모형을 정의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모형은 이론을 조작적으로 정형화한 것이라는 점, 둘째, 수업의 절차나 과정을 포함한다는 점, 셋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되는 전략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

1) 교수 학습 모형에 대한 혼란은 기본적으로 모형(model)이라는 용어의 모호성에 기인한다. 모형의 축어적 의미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을 본떠서 그것보다 작게 만든 것으로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관해 설명해 놓은 이론을 정형화하여 명시해 놓은 일종의 '조작적 정의'라 불릴 만한 것이다. 모든 모형은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데 대체로 이론은 간결한 형태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형을 통해 구체화되기 마련이다.

(최영환 1999). 이러한 교수 학습 모형을 통해서 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적인 국어 교육 현상이 만나고 내용과 방법이 만나며 교사와 학습자가 만남으로써 국어과 교육의 본질에 합당한 국어교육이 실천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국어과 교육은 가르쳐야 할 내용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교수 학습 방법이 없는 ‘무방법(無方法)의 교과’로 인식되어 왔다. 국가 수준에서 국어과 교육의 전반적인 계획을 문서화해 놓은 국어과 교육과정 문서에서조차 구체적인 교수 학습 방법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주지하다시피 불과 10여년 전인 6차 교육과정기에서부터였다. 그나마 6차 교육과정에서 바람직한 국어과 교수 학습 모형으로 제시된 것은 ‘설명하기→시범 보이기→질문하기→활동하기’ 순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절차를 바탕으로 하는 직접 교수 모형이었는데 이 모형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사용기능 영역, 국어지식 영역, 문학 영역 등 매우 이질적인 국어과의 모든 영역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sup>2)</sup>

또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 교수 학습의 질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직접 교수법만을 명시해 놓았던 6차와 달리 전문가 협력 학습 모형, 역할놀이 수업 모형, 문제해결 학습 모형, 창의성 개발 모형, 반응 중심 수업 모형 등<sup>3)</sup>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반응 중심 수업 모형을 제외하고는 대개가 국어과 각 영역의 본질에 합치되는 교수 학습 모형이라기보다는 범교과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것이어서 실제 국어과 교수 학습 현장에서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렇듯 교육과정 수준에서 국어과 교육의 효율적인 교수 학습 모형을 논의하면서 지적되는 문제점들은 서로 관련성이 적고 이질적인 성격의

2) 직접 교수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에 대해서는 이성영(1997)을 참조할 것.

3)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국어과 교수 학습 모형의 구체적인 수업 절차와 내용 등에 대해서는 김재봉(2000), 경인초등국어교육학회(2000) 등을 참조 바람.

국어과 하위 영역들-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언어사용기능 영역, 국어 지식 영역, 문학 영역-의 성격과 내용, 교수 학습 목표에 따라 교수 학습의 형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과 교육과정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모형이란 엄격한 의미에서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교수 학습 모형을 마치 국어과 전체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인 교수 학습 모형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국어 사용 현상에서 일반적인 문법 규칙을 찾아내는 탐구 활동이 강조되는 국어지식 영역과 문학의 수용 및 창작 활동을 통한 학습자의 개성적인 반응이 강조되는 문학 영역을 교사의 설명과 시범에 의존하는 직접교수만으로 가르치는 것은 무리이다. 또 말하기 기능을 가르칠 때도 청·화자가 시·공간을 공유하는 구두 언어성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무시하거나 배제한 채, 같은 표현 기능이라는 이유로 문자 언어를 바탕으로 하는 쓰기 기능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현실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원래 부진아를 대상으로 개발된 직접교수 모형이나 범교과적으로 일반적인 수준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제반 모형을 국어과의 이질적인 여섯 가지 하위 영역에 만병통치약처럼 천편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우리 국어교육의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의 기본적인 관점은 실제 교수 학습 현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수 학습 모형은 국어과 각 하위 영역별로 해당 영역의 본질 및 특성, 교육과정에 명시된 구체적인 교수 학습 목표와 교수 학습 내용, 학습자 및 교수자 측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바로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우선 시론적으로 초등 국어과 쓰기 영역을 중심으로 그 연구 범위를 제한하고 창의적인 국어 사용 능력 신장이라는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 학습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특히 쓰기 영역으로 그 연구 범위를 제한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의식 때문이다. 그 하나는 5차 교육과정기 이후 소위 과정 중심, 전략 중심의 쓰기 교육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쓰기 교육 현장이 여전히 과제 제시-오류 점검형 내지는 방임형의 쓰기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매 쓰기 수업 시간마다 분절적인 쓰기 전략만을 요란하게 강조하면서 정작 학생들이 목소리가 담긴 결과물로서의 작품이나 학습자들의 쓰기 경험이 없는 공허한 쓰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문제 의식이었다. 본고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7차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쓰기 교육의 방향과 합치되는 쓰기 교수 학습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II장에서는 쓰기 기능의 본질과 특성을 최근의 여러 작문 이론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고, III장에서는 7차 초등 국어과 교육과정에 명시된 초등 쓰기 영역의 교수 학습 목표와 교수 학습 내용, 교수 학습 방법 등을 통해서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쓰기 교육의 방향을 정리해 본다. IV장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쓰기 교수 학습 모형의 운영 원리를 추출하여 정리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워크숍 중심의 쓰기 교수 학습 모형과 각 단계별 구체적인 교수 학습 방안을 개발하여 제시한다.

## II. 쓰기 기능의 본질과 특성

쓰기 영역의 교수 학습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쓰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규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쓰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결과물로서의 글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쓰기 과정 자체를 중시하는 구성주의적 방식으로 나뉘며 구성주의 방식은 다시 쓰기를 개인적인 행위로 보느냐 사회적인 행위로 보느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본절에서는 쓰기 기능의 본질과 특성을 크게 형식주의 작문 이론, 인지주의 작문 이론, 사회 구성주의 작문 이론의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기로 한다.

## 2.1 형식주의 작문 이론

형식주의 작문 이론에서는 쓰기란 쓰기와 관련된 지식을 객관화된 작문 절차와 장르 규범, 글쓰기 규칙에 따라 글로 실현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다음의 <그림1>에 제시된 단계적 쓰기 모형에서 알 수 있듯이 형식주의 작문 이론에서는 쓰기 과정을 선조적인 것으로 보면서 쓰기의 결과로 생산된 결과물로서의 글에 관심을 둔다.

<그림 1> 단계적 쓰기 모형

예비작문하기(rewrite)→작문하기(write)→다시쓰기(rewr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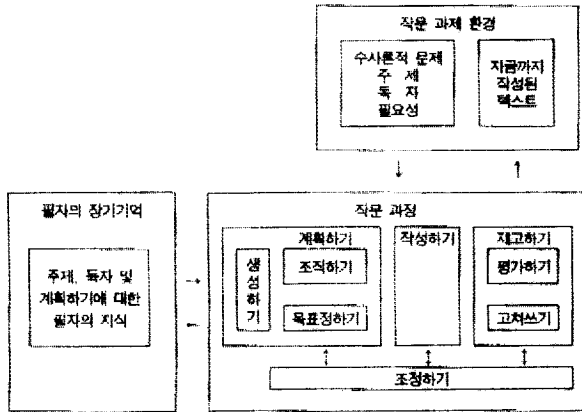
형식주의 작문 이론에 따르면 작문 교육에서 교사가 해야 할 일은 모범적인 텍스트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객관화된 지식을 전달해 주고 완성된 학생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교정해 주는 것이 된다. 또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쓰기 학습이란 글쓰기의 규칙을 배우고 모범적인 텍스트를 모방하여 쓰는 것이 된다.

## 2.2 인지주의 작문 이론

형식주의 작문 이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인지주의 작문 이론은 작문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작품의 형식보다는 필자의 머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지 과정에 더 관심을 두면서 소위 과정 중심 작문 교육을 주도해 왔다. 인지주의 작문 이론에서는 쓰기를 개인적인 필자가 일련의 목표지향적인 문제해결과정을 통해서 한 편의 글을 완성해 가는 사고 과정으로 본다.

인지주의 작문 이론의 특성은 다음의 <그림2>에서 제시된 Flower & Hayes(1981)의 인지적 작문 모형에서 핵심적으로 드러난다.

<그림2> Flower & Hayes(1981)의 인지적 작문 모형



이 모형에서는 작문 행위를 고정된 단계로 보지 않고 필자가 작문 과정에서 조절하고 통제해야 하는 몇 가지 하위 과정들의 집합으로 본다. 이 모형에서는 쓰기를 작문 과제 환경과 필자의 장기 기억, 그리고 작문 과정이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쓰기는 필자의 장기 기억과 작문 과제 환경 속에서 계획하기, 작성하기, 재고하기, 조절하기 등의 역동적인 의미 구성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문제 해결 행위요, 사고 과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지주의 작문 이론에서는 기존의 결과 중심의 작문 교육을 지양하고 일련의 글쓰기 과정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나 전략을 쓰기 교육의 주된 내용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러한 인지 구성주의 작문 이론은 글쓰기를 개인에 한정된 문제로만 인식한 나머지 글쓰기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회 문화적 상황이나 맥락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된다. 또 지나치게 글쓰기가 이루어지는 인지적인 의미 구성 과정 자체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결과물로서의 글 자체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글쓰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결과물로서의 글을 생산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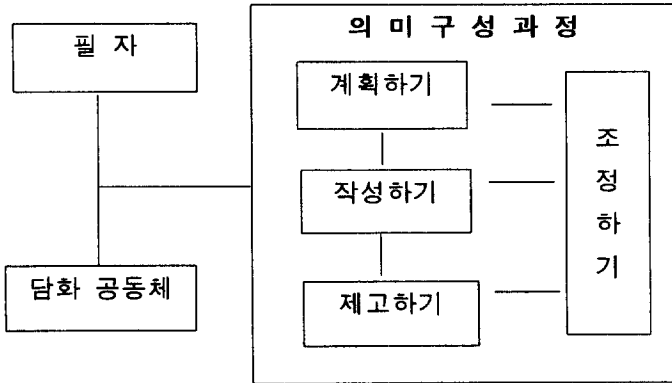
내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글쓰기의 과정 못지 않게 결과물로서의 텍스트 자체도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 2.3. 사회 구성주의 작문 이론

사회 구성주의 작문 이론에서는 쓰기를 객관화된 지식을 실현하는 과정도, 순수하게 개인적인 의미 구성 과정도 아닌 담화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과정으로 본다. 다음의 <그림 3>에 제시된 사회 구성주의 작문 모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필자는 사회 문화적 상황 맥락 안에서 담화 공동체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글을 쓰는 존재이며 또 이러한 필자가 생성해 낸 글은 필자 개인이 생성한 결과라기보다는 담화 공동체 안에서 교사나 동료와의 의미 협상을 통한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본다.

사회 구성주의 작문 이론에서는 사고가 인식 주체인 개인의 정신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담화 공동체 구성원들간에 이루어지는 언어적 대화가 내면화된 것이라는 비고츠키(Vygotsky)의 관점을 받아들여 작문을 필자가 담화 공동체 구성원들과 나누는 대화의 과정으로 본다. 작문을 대화 과정으로 파악하는 이 이론에서는 학습을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문가와 초보자의 인지적 도제 관계에 의한 전수의 과정으로 파악한다. 즉, 학습자는 책임 이양의 틀 속에서 전문가인 교사나 유능한 학습자들과의 대화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 수준의 학습을 점차 개인적 수준의 학습으로 내면화하게 되면서 자기 주도성을 획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독자를 고려하는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림3> 사회 구성주의 작문 모형



사회 구성주의 작문 이론을 근간으로 하는 작문 지도에서는 대화나 의미 협상을 강조하면서 학생과 교사, 학생 동료 상호간의 협의 과정에 바탕을 둔 소집단 협동 작문 활동 등을 주된 쓰기 교육의 내용으로 삼는다.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쓰기의 본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주의 작문 이론의 관점에 의하면 쓰기란 교사가 제시하는 글쓰기 규칙의 학습과 반복적인 연습으로 형성되는 결과적인 것이다. 둘째, 인지주의 작문 이론의 관점에 의하면 쓰기란 개인적인 인지 과정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 구성주의 작문 이론의 관점에 의하면 쓰기란 담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본 쓰기의 본질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쓰기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야 할 매우 유용한 쓰기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본다. 즉 쓰기 교육에서 과정 못지 않게 결과물로서의 글도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과 글쓰기란 언제나 구체적인 사회 문화적 상황 맥락 안에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목표지향적인 문제해결과정이라는 점, 글쓰기 능력은 교사와 학습자간, 동료 학습자들간의 상호작용적인 대화 과정과 문제해결과정의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글쓰기 전략을 학습함으로써 신장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해 준다.

### III. 쓰기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국어과 쓰기 교수 학습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교수 학습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쓰기 영역의 교수 학습 목표 및 교수 학습 내용, 교수 학습 방법 등의 제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쓰기 교육의 방향성이 교수 학습 목표와 교수 학습 내용, 교수 학습 방법 등의 제반 요소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기도 하려니와 실제 쓰기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수 학습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모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제반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초등 단계에서 쓰기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인 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쓰기 교수 학습 모형은 현행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쓰기 교육의 목표와 내용, 교수 학습 방법과 결코 유리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3.1. 쓰기 영역의 교수 학습 목표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쓰기 영역의 목표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각 영역을 통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교육과정에 명시된 목표 체계와 내용 체계를 쓰기 교육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목표를 추출하여 제시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한다. 교육과정 목표로부터 추출한 쓰기 영역의 교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쓰기 활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쓰기 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가. 언어 표현 행위로서의 쓰기의 본질을 이해한다.
- 나. 쓰기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쓰기 원리를 이해한다.
- 다. 쓰기 원리와 실제적인 쓰기 상황에 맞게 사상과 감정을 글로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 라.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즐겨 글로 쓰는 태도를 지닌다.

### 3.2. 쓰기 영역의 교수 학습 내용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다음의 <표1>에서와 같이 쓰기 영역의 교수 학습 내용을 ‘쓰기’를 보다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명제적 지식으로서의 ‘본질’에 관한 학습, 실제 쓰기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절차적 지식으로서의 ‘원리’, 바람직한 쓰기의 ‘태도’에 관한 학습, 이 세 영역이 모두 ‘쓰기의 실제’와 유기적인 관련을 맺도록 하고 있다. 즉, 7차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쓰기 교육의 내용은 쓰기에 대한 명제적 지식으로서의 ‘본질’-필요성, 목적, 개념, 방법, 상황, 특성-을 파악하고, 독립적이고 전략적으로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등의 일련의 쓰기 과정을 운용해 나갈 수 있게 해 주는 방법적 ‘원리’를 체득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생산되는 다양한 장르의 글-정보전달, 설득, 정서표현, 친교-을 실제적인 글쓰기 맥락 안에서 수행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표1>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쓰기 영역의 내용 체계

영역	내 용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쓰기의 본질</li> <li>- 필요성</li> <li>- 목적</li> <li>- 개념</li> <li>- 방법</li> <li>- 상황</li> <li>- 특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쓰기의 원리</li> <li>- 글씨 쓰기</li> <li>- 내용 생성</li> <li>- 내용 조직</li> <li>- 표현</li> <li>- 고쳐쓰기</li> <li>- 컴퓨터로 글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쓰기의 태도</li> <li>- 동기</li> <li>- 흥미</li> <li>- 습관</li> <li>- 가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쓰기의 실제</li> <li>-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li> <li>- 설득하는 글 쓰기</li> <li>- 정서 표현의 글 쓰기</li> <li>- 친교의 글 쓰기</li> </ul>		

### 3.3. 쓰기 영역의 교수 학습 방법

교육과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쓰기 영역의 교수 학습 방법은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에 제시되어 있는 다음의 유의 사항을 통해서 정리될 수 있다. 직접 교수법만을 유일한 교수 학습 방법론으로 제시하였던 6차 교육과정에 비해 7차에서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교수 학습 분위기 속에서 쓰기 영역의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되, 실제 쓰기 수행을 통해서 본질, 원리, 태도의 학습 내용이 서로 연관되도록 할 것과 과정과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교수 학습 방법과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력을 신장시키도록 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1) 영역별 학습 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수 학습을 전개하되,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과제를 제시하여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인 학습력을 신장시킨다.

(나) 개별적인 현상을 지나치게 분석하는 접근 방식을 지양하여 국어 사용의 양상을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 지식을 주변 세계의 언어 자료나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지도함으로써 지식의 생성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라) 언어 수행에 필요한 원리 및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 시범, 질문, 학습자의 독자적인 연습, 자기 점검과 평가 과정을 유기적으로 관련지어 지도한다.

(마) 문제해결 과정(문제인식, 문제이해, 해결 계획 수립, 해결 시행, 반성 등)과 구체적인 해결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문제해결 결과뿐만 아니라 해결 과정과 그 방법도 중시한다.

(바) 언어 수행에 대한 자기 점검 기회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국어 사용의 태도를 형성하도록 한다.

(2) 강의, 토의, 토론, 현장 학습, 협동 학습 등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에 적합한 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교수 학습을 전개하되,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나) 학습자의 창의적인 국어 사용 활동을 권장하고, 학습자의 다양한 반응을 적극 수용한다.

(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교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

(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성실하게 듣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

(마)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바) 의견과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

(사) 학습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여 부족한 점을 개선한다.

(3) 본질, 원리, 태도의 학습 내용이 실제의 국어 사용과 연관되도록 교수 학습을 전개하되,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쓰기 지도에서는 다양한 목적과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실제로 글을

쓰는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 특히 쓰기 상황과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글을 쓰게 하고, 쓴 글에 대한 자기 비정과 상호 비정 활동을 강조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현행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 교수 학습 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7차 교육과정이 지향하고 있는 쓰기 교육의 방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쓰기에 관한 본질, 원리에 대한 명제적·절차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다양한 목적과 대상의 내용의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수행 중심의 쓰기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자기주도적인 쓰기 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하여 교사에게서 학습자에게로의 교수 학습 권한이 이양되는 책임이양원리를 주축으로 하는 직접 교수법을 통해서 쓰기 수행에 필요한 원리 및 전략을 가르치도록 하되, 자기 점검과 평가 과정을 유기적으로 관련지어 지도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쓰기 과정을 운용할 수 있는 상위인지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글쓰기를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조직하여 표현하는 일련의 문제 해결과정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문제해결 전략들을 중심으로 하는 쓰기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과정 중심, 전략 중심의 글쓰기 교수 학습 방법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글쓰기의 과정을 중시하되, 지나치게 분석적이고 분절적으로 개별적인 쓰기 기능이나 전략을 교육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직접 한 편의 글을 구성해 보는 총체적인 접근 방법을 지향함으로써 글쓰기의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물로서의 글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쓰기를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행위로 인식함으로써 쓰기를 개인적인 필자인 학습자가 교사 또는 동료 학습자들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는 협동 학습 형태로 이루어지는 쓰기 수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 IV. 워크숍 중심의 쓰기 교수 학습 모형

본장에서는 이제까지 논의된 쓰기 기능의 본질과 현행 초등 국어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쓰기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등을 기초로 하여 바람직한 쓰기 교수 학습 모형의 운영 원리를 추출하여 정리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워크숍 중심의 쓰기 교수 학습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한다.

워크숍(workshop) 중심의 쓰기 교수 학습 모형이란 교사의 지도와 안내에 따라 학습자 전원이 모둠 활동 등을 통해서 실제 쓰기 수행을 중심으로 한 글쓰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결과물로서의 글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교수 학습 과정이나 절차를 말한다. 이 워크숍 중심의 쓰기 교수 학습 모형에서는 도입부에서 교사가 설명하고 시범보이는 쓰기 방법이나 원리에 따라서 학습자가 쓰기전 단계, 초고쓰기 단계, 고쳐쓰기 단계, 편집하기 단계, 출판하기 단계 등 일련의 쓰기 과정을 통한 실제적인 쓰기 수행 경험을 통해서 결과물로서의 글을 작품화해서 생산해 내는 것에 최우선적 가치를 둔다. 다양한 상황 맥락 안에서 전개되는 역동적인 의미 구성 과정을 운영하고 조절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작문력의 신장과 함께 다양한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 경험, 그리고 교사와 동료 학습자들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이 워크숍 중심의 쓰기 교수 학습 모형은 이제까지의 쓰기 교육이 지나치게 개별적인 쓰기 기능이나 전략 자체에만 치우쳐서 결과물로서의 글을 경시해 왔던 것과는 달리 과정과 결과의 균형잡힌 쓰기 교육과 학습자 중심의 의미있는 쓰기 경험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4.1 워크숍 중심의 쓰기 교수 학습 모형의 운영 원리

###### (1) 생태학적 교수 학습 환경의 구성 원리

워크숍 중심의 쓰기 교수 학습 모형은 쓰기 수행이 이루어지는 교실

환경을 학교 밖의 실제 세계처럼 학습자들이 실제로 다양한 자료를 읽고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의미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하나의 생태계(ecosystem)로 창출해 내는 것을 주요한 전제 조건으로 삼는다. 생태학적 교실 환경<sup>4)</sup>이란 학습자들이 읽고 싶은 각종 자료와 글쓰기에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 웹 등을 통해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아동들이 글쓰기를 자연스러운 학교 생활의 일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격려되는 정의적 환경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생태학적 교실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제적이면서도 유목적적인 다양한 쓰기 목적과 주제와 형식으로 자기주도적이면서도 목표지향적으로 쓰기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 (2) 다양한 접점에서의 글쓰기 경험 원리

워크숍 중심의 쓰기 교수 학습 모형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을 강조한다. 바람직한 쓰기 교육은 글쓰기를 의사소통행위로 인식하고 독자들을 고려하면서 써야 하는 설명문이나 논술문 등의 의사소통적 글쓰기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표현 욕구에 의해서 생산되는 표현적 장르의 글쓰기 등 다양한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 경험과 여러 유형의 독자(교사, 부모님, 친구, 자기 자신 등)들로부터 자신이 쓴 글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경험하면서 성숙한 필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과정과 결과의 균형성 원리

워크숍 중심의 쓰기 교수 학습 모형은 글쓰기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물로서의 글도 함께 강조하는 과정과 결과의 균형잡힌 쓰기 교육을 지향한다. 5차 교육과정기 이후 우리 쓰기 교육은 과정과 전략을 강조하

4) 생태학적 교수 학습 환경의 개념과 의의에 대한 논의는 원진숙(1999)를 참조할 것.

면서 고립적이고 개별적인 쓰기 기능이나 전략 자체에만 지나치게 치우쳐서 이루어져 오면서 정작 이들을 통합해서 한 편의 글을 쓰는 경험 자체와 연결시키지 못해 왔다. 브레인스토밍이나 마인드맵, 다발짓기 등의 쓰기 전략은 실제 한 편의 글을 쓰는 전체 과정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쓰기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면 결과물로서의 글 역시 과정만큼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과정을 중심으로 한 접근 방법 역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일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워크숍 중심의 쓰기 교수 학습 모형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학습자들이 쓰기 전 단계, 초고쓰기 단계, 고쳐쓰기 단계, 편집하기 단계, 출판하기 단계 등의 다섯 단계를 중심으로 한 쓰기 과정을 통해서 특정 주제를 바탕으로 한 쓰기 과제를 완성도 높은 결과물로 출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다.

#### (4) 책임이양 원리

워크숍 중심의 쓰기 교수 학습 모형은 수업에서의 주도권이 교사에게서 학습자에게 점차 이양되는 책임이양 원리를 기본 원리로 한다. 초등 단계의 학습자들은 아직 자기주도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입 단계에서는 일단 교사 주도하에 글쓰기에 필요한 원리나 방법 등을 구조화된 지식의 형태로 설명해 주고 시범을 보여주는 직접교수법 형태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학습자들은 도입부에서 교사가 제시한 쓰기 원리나 방법 등을 모방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독자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대개 책임이양 원리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실제적인 쓰기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을 손쉽게 가르칠 수 있는 직접교수법에 의해 실현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직접 교수법은 자칫하면 학습자 자신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미덕이 되어야 하는 작문 교실에서 학생들의 사고를 특정 방향으로 편향되게 규정하거나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본 워크숍 중심의 쓰기 교수 학습 방법에서는 쓰기

전 단계에서 미니 레슨의 형태로 교사가 그 시간에 수행할 쓰기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원리나 방법 등을 가능하면 간단히 설명하고 시범 보인 다음 학습자들 스스로가 이를 바탕으로 곧바로 자신의 쓰기 과제를 일련의 쓰기 과정을 거쳐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한다.

이 때 교사는 수업에서의 주도권이 학습자에게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모둠별로 쉼순서를 하면서 저마다 학습 속도나 수준이 다른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비계(scaffolding)<sup>5)</sup>를 제공해 줌으로써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인 쓰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 혹은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5) 상호작용성의 원리

워크숍 중심의 쓰기 교수 학습 모형은 일련의 글쓰기 과정에서 학습자가 교사나 동료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경험하도록 하는 상호작용성 원리를 강조한다. 글쓰기 행위는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인지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담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행위이기도 하다. 사실 필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진공 상태 속에서 글을 쓰지는 않는다. 필자는 언제나 구체적인 상황 맥락 속에서 독자가 누구인지, 독자의 기대나 요구는 무엇인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수사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글을 쓴다.

글쓰기 과제가 무엇이든 이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은 학습자에게 문제 상황이 된다. 학습자들은 이 문제 상황 속에서 교사나 동료들로부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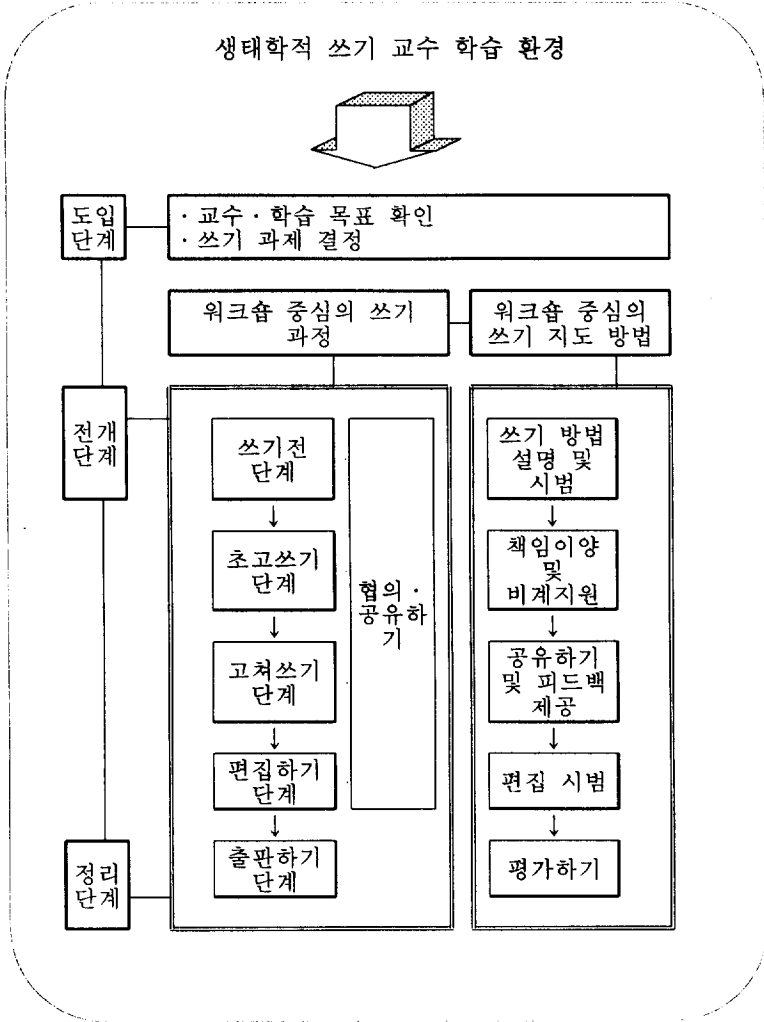
5) ‘비계’란 원래 건축 분야에서 사용되는 ‘발판’과 같은 것으로 작업장의 인부가 비계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달성할 수 있듯이 학습자도 교사나 동료 학습자의 도움을 통해서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비고츠키의 관점을 수용한 사회 구성주의 작문 이론에서는 학습자가 독자적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정적인 발달 수준과의 거리인 ‘근접 발달 지역’ 안에서 지원되는 교사의 비계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인 쓰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터의 적극적인 지원을 비계(scaffolding)로 하여 일련의 쓰기 과정을 거쳐서 해결해 나가는 문제해결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게 된다. 학습자들은 초고쓰기 과정을 통해서 교사나 동료와 함께 쓸 내용을 협의하기도 하고 자신이 쓴 작품을 동료들과 공유하고 그들로부터의 피드백을 통해서 자신의 작품을 반성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워크숍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자기주도적인 쓰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독자를 인식할 수 있는 사회 인지(social cognition)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된다.

## 4.2 워크숍 중심의 쓰기 교수 학습 모형

워크숍 중심의 쓰기 교수 학습 방안의 성패는 교사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사는 학습자의 쓰기 발달 단계와 유형, 쓰기 과정 자체에 대한 전문적인 안목과 식견으로 생태학적 쓰기 교실의 환경을 조성하는 학습 환경 조성자의 역할, 워크숍의 도입부에서 교수 학습 목표를 인식시키고 쓰기 학습에 필요한 원리와 방법을 제공해 주는 명시적 교수자로서의 역할, 학습자의 실제적인 글쓰기 경험을 격려하고 적절한 비계를 제공해 주는 촉진자로서의 역할, 워크숍 쓰기 교수 학습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학습자의 개별적인 발달적 수행을 마음의 눈으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4> 워크숍 중심의 쓰기 교수 학습 모형



이미 4.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워크숍 중심의 쓰기 교수 학습 모형은 생태학적 교수 학습 환경의 구성 원리, 다양한 접점에서의 글쓰기 경험 원리, 과정과 결과의 균형성 원리, 책임이양 원리, 상호작용성의 원리를 핵심적인 구성 원리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다섯 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구안된 워크숍 중심의 쓰기 교수 학습 모형과 각 단계별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도입 단계

도입 단계는 교사 주도하에 생태학적 쓰기 교수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습자들에게 교수 학습 목표와 쓰기 과제가 무엇인지를 인식시키는 단계이다. 교사는 쓰기 과제를 부과할 때 단순히 교과서에 제시된 교수 학습 목표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학습자들이 다양한 접점에서의 실제적 이면서도 유의미한 글쓰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학습자들은 이 도입 단계를 통해서 자신들이 수행해야 할 쓰기 과제를 구체적으로 표상하게 된다.

### (2) 전개 단계

전개 단계는 워크숍 형태로 학습자들이 일련의 쓰기 과정을 거쳐서 한 편의 글을 완성해 나가는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교수자는 책임이양의 원리에 따라 쓰기 전 단계에서 미니레슨(mini-lesson) 형태로 간단히 부과된 쓰기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명제적, 절차적 지식을 설명하고 시범보이는 과정을 거쳐서 차츰 과제 수행에 대한 주도권을 학습자에게 이양하면서 학습자들에게 비계와 피드백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 전개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학습자들이 개별적인 쓰기 기능이나 전략의 연습에 치우치기보다는 교사나 동료 학습자들로부터 지원되는 비계와 일련의 쓰기 과정을 통해서 한 편의 글을 완성해 나가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 쓰기 전 단계

이 단계는 대체적인 글의 주제나 방향의 윤곽을 잡아나가는 준비 단계이다. 쓰기 전 단계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글 쓸 주제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들은 교사에 의해 부과되는 글쓰기 주제가 아닌 스스로 선택한 주제의 과제를 수행할 때 훨씬 더 자기 주도적인 책무성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브레인스토밍이나 마인드 맵 등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생성해 내고 대체적인 글의 주제나 방향이 정해지면 학습자들은 자신이 쓰게 될 주제에 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알고 싶은 내용, 찾아봐야 할 내용 등을 중심으로 메모를 하거나 다양한 방법(협의하기, 자료찾기, 인터뷰하기, 자유연상 글쓰기 등)을 동원해서 관련 자료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이를 다발짓기 등의 방법을 통해서 조직화한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주제 선정이나 아이디어 생성 및 조직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위해서 도입부에 간단한 미니 레슨의 형식으로 작업에 필요한 방법을 명시적으로 설명하거나 시범 보이기를 통해서 비계(scaffolding)를 제공한다.

(나) 초고쓰기 단계

이 단계에서는 쓰기 전 단계의 작업을 바탕으로 초고 형태의 글을 쓰는 단계이다. 초고란 문자 그대로 완결된 글이 아니라 고쳐 쓸 것을 전제로 하여 쓰여지는 글이기 때문에 이 초고쓰기 단계에서는 띄어쓰기, 맞춤법 등 글의 형식적인 측면은 신경쓰지 않으면서 내용 자체에만 집중해서 떠오르는 생각을 빠른 속도로 적어나가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에게 글이란 초고 단계에서 대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고쳐쓰기, 편집하기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해 가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 주는 일이다.

## (다) 고쳐쓰기 단계

고쳐쓰기 단계는 자신이 쓴 초고를 다시 읽어보면서 글의 내용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다듬어 나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정 작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신이 쓴 글을 소집단 안에서 동료들과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때 교사는 '작가석(author's chair)'을 마련해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글을 동료들 앞에서 발표해 보고 동료들로부터 자신이 쓴 글에 대한 피드백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준다. 어린 아동들은 작가석에 앉아서 동료들에게 자신의 글을 읽어주는 작가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글쓰기가 독자를 전제로 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동료들로부터의 다양한 반응을 통해서 자신의 글을 좀더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된다. 동료들로부터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자신의 글을 고쳐쓰는 활동은 그 자체로 아동이 성숙한 필자로 성장하게 해 주는 매우 유의미한 경험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때 공유하기 과정을 통해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교사와 동료학습자들은 사회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비계 제공자 역할을 하는 셈이다.

## (라) 편집하기 단계

편집하기 단계는 글을 작품화해서 출판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이다. 이전까지의 단계가 주로 글의 내용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었다면 편집하기 단계는 띄어쓰기, 맞춤법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 오류가 없도록 글을 깔끔하게 다듬어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둔다. 교사는 이 편집 단계에서 OHP 등을 활용하여 아동의 글을 대상으로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오류, 비문 등을 바로잡아 나가는 시범 보이기를 통해서 이 과정이 독자에게 읽히는 글이 되도록 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단계는 특히 과정과 결과의 균형성 원리를 지향하는 워크숍 중심의 쓰기 교수 학습 방법을 실천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해 주는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학습자들은 교사가 직접 시범으로 보여주는 편집하기 활동을 통해서 글의 형식적 측면에 대한

고려와 노력이 자신이 쓴 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독자들에게 보다 편하게 읽힐 수 있는 글이 되도록 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임을 인식하게 된다.

### (3) 정리 단계

정리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자신이 쓴 글을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다듬어서 출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작가로서의 경험을 갖게 해 주고 교사는 출판된 글을 평가하도록 한다.

### (마) 출판하기

출판하기란 학생들이 쓴 글을 학급 문집이나 개인 문집(포트폴리오)으로 엮어 내거나 교실 게시판, 학교 신문 등에 발표함으로써 학급 동료, 교사, 학부모 등의 실제적인 독자와 글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 교육 현실에서 아동이 쓴 글을 출판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교사는 어떤 형태로든 아동이 쓴 글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아동에게 작가로서의 경험을 갖게 해 주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동을 작가로 대우해주고 아동에게 작가로서의 경험을 직접 해 보게 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작문 지도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이 정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역시 결과물로서의 글 자체에 대한 고립적이고 분절적인 평가보다는 필자로서 성장해 나가는 학습자의 발달적 수행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평가가 바람직하며 평가 주체도 반드시 교사에 한정되기보다는 완성된 작품을 대상으로 한 동료 평가나 자기 평가 방식도 함께 원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6) Tompkins(1994)에서는 초등 단계 아동들에게 가능한 출판하기의 형태로 작가석에서 동료들에게 작품을 읽어주기, 학급 문집 내기, 학교 신문이나 지역 신문에 기고하기, 교실 게시판에 전시하기, 카세트 테이프에 작품을 녹음하기, 극본으로 만들기, 개인 문집으로 만들기 등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V. 결론

이제까지 본고에서는 7차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쓰기 교육의 방향과 합치되면서도 쓰기 영역의 본질 및 특성에 맞는 초등 쓰기 교수 학습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이제까지 논의된 바를 간단히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본고에서는 우선 국어과 교수 학습 모형의 개념을 ‘국어과의 각 하위 영역에 관한 교수 학습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교수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수 전략 및 학습 전략을 통합하여 정형화해 놓은 수업 과정이나 절차’라는 의미로 정의하고 실제 교수 학습 현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수 학습 모형이란 국어과 각 하위 영역별로 해당 영역의 본질 및 특성, 교육과정에 명시된 구체적인 교수 학습 목표와 교수 학습 내용, 학습자 및 교수자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된 것이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2) 쓰기에 대한 개념 규정 및 쓰기 기능 자체의 본질적 특성을 형식주의 작문 이론, 인지주의 작문 이론, 사회 구성주의 작문 이론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바람직한 쓰기 교육은 과정 못지 않게 결과물로서의 글도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과 글쓰기란 언제나 구체적인 사회 문화적 상황 맥락 안에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목표 지향적인 문제해결과정이라는 점, 글쓰기 능력은 교사와 학습자간, 동료 학습자들간의 상호작용적인 대화 과정과 문제해결과정의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글쓰기 전략을 학습함으로써 신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정리해 보았다.

(3) 현행 7차 초등 국어과 교육과정에 명시된 쓰기 영역의 교수 학습 목표와 교수 학습 내용, 교수 학습 방법 등의 검토 작업을 통해서 교육 과정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쓰기 교육의 방향을 정리하였다.

(4) 쓰기 기능의 본질과 현행 초등 국어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쓰기 교육의 방향성을 토대로 하여 추출한 다섯 가지 핵심적인 운영 원리-생태학적 교수 학습 환경의 구성 원리, 다양한 접점에서의 글쓰기 경험 원

리, 과정과 결과의 균형성 원리, 책임 이양 원리, 상호 작용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워크숍 중심의 쓰기 교수 학습 모형과 각 단계별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개발하여 제시한 워크숍 중심의 쓰기 교수 학습 모형은 학습자가 교사의 안내와 지원에 따라 쓰기전 단계, 초고쓰기 단계, 고쳐쓰기 단계, 편집하기 단계, 출판하기 단계 등 일련의 쓰기 과정을 통한 실제적인 쓰기 수행 경험을 통해서 결과물로서의 글을 작품화해서 생산해내는 것에 최우선적 가치를 둔다. 이제까지의 쓰기 교육이 지나치게 개별적인 쓰기 기능이나 전략 자체에만 치우쳐서 결과물로서의 글을 경시해 왔던 것과는 달리 과정과 결과의 균형잡힌 쓰기 교육과 학습자 중심의 의미있는 쓰기 경험을 강조함으로써 창의적인 국어 표현 능력과 자기 주도적인 쓰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제까지 우리 국어교육 분야에서는 실제적인 국어과 교수 학습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교수 학습 모형 자체의 개발 작업도 드물었고 실제 교수 학습 현장에서 이미 개발해 놓은 교수 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교육적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그 교육적 결과를 검증하려는 노력도 매우 드물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일반화된 평가일 것이다.

현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모형 개발 작업은 무엇보다 해당 영역의 본질이나 특성, 학습자와 교수자 변인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해당 분야의 축적된 제반 이론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교육과정의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과 합치될 수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 개발한 쓰기 교수 학습 모형은 바로 이 기본적인 교수 학습 모형 개발 원칙으로부터 출발한 다소 시론적인 연구 성과물이라 할 것이다. 본고에서 개발한 '워크숍 중심의 쓰기 교수 학습 모형'은 다분히 연역적인 틀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론적인 것이어서 모든 쓰기 교수 학습 현장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만능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물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실제 교수 학습 현장에서 적용해 보고 그 교육적 효율성

및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 보는 작업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 참고 문헌

- 곽병선 외(1996), 『수업 모형의 이론과 적용』,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 김재봉(2000),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수 학습 방법”, 『한국초등국어교육』 16,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박영목(1995), “작문 연구의 최근 동향과 전망”, 『제6차 국어교육 연구발표대회 자료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박영목(1999), “국어 표현 과정과 표현 전략”, 『독서연구』 4, 한국독서학회.
- 박영목·한철우·윤희원(2001), 『국어과 교수 학습론』, 교학사.
- 박태호(2000), 『장르 중심 작문 교수·학습론』, 박이정.
- 염은열(2000), “표현교육의 연구 경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11, 국어교육학회.
- 염창권(1997), “쓰기 교수 학습 모형”, 『국어수업방법』, 박이정.
- 원진숙·황정현 역(1998). 『글쓰기의 문제해결전략』, 동문선.
- 원진숙(1999), “쓰기 영역 평가의 생태학적 접근 - 대안적 평가방법으로서의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10, 한국어학회.
- 원진숙(2000),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평가”, 『한국초등국어교육』 16,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원진숙(2001), “구성주의와 작문”, 『한국초등국어교육』 17,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윤기옥 외 역(1987), 『授業模型』, 형설출판사.
- 이대규(1999), “국어 수업 모형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 100,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이삼형 외(2000), 『국어교육학』, 소명출판.

- 이수진(2001), “후기 과정중심 작문 교육이론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 이재승(1998), “과정 중심의 쓰기 교육의 구현 방안”, 『청람어문학』 20, 청람어문학회.
- 최영환(1999), “국어과 교수 학습 모형의 체계화 방안”, 『국어교육학 연구』 9집, 국어교육학회.
- 최영환 외(2000), 『국어과 교수 학습 모형의 이론과 실제』, 경인초 등국어교육학회.
- 최현섭·박태호(1994), “작문 중심의 전략적인 글쓰기 지도 방안”, 『한국초등국어교육』 10.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최현섭·박태호·이정숙(2000), 『구성주의 작문 교수·학습론』, 박이정.
- Flower, L.(1994), *The Construction of negotiated meaning*,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Elbow, Peter(2000), *Everyone can write*, Oxford University Press.
- Tompkins Gail. E.(1994), *Teaching Writing*,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Nystrand et al.(1993), “Where did composition studies come from?”, *Written Communication* 10/3.

<초록>

## 초등 국어과 교수 학습 모형 개발 연구

- 쓰기 영역을 중심으로

원 진 숙

이 논문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국어 교과와 교수 학습 모형 개발을 그 목적으로 한다. 현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모형 개발 작업은 해당 영역의 본질이나 특성, 학습자와 교수자 변인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해당 분야의 축적된 제반 이론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과 합치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본고에서 개발하여 제시한 워크숍 중심의 쓰기 교수 학습 모형은 학습자가 교사의 안내와 지원에 따라 쓰기 전 단계, 초고쓰기 단계, 고쳐 쓰기 단계, 편집하기 단계, 출판하기 단계 등 일련의 쓰기 과정을 통한 실제적인 쓰기 수행 경험을 통해서 결과물로서의 글을 작품화해서 생산해 내는 것에 최우선적 가치를 둔다. 이 쓰기 교수 학습 모형은 생태학적 교수 학습 환경의 구성원리, 다양한 접점에서의 글쓰기 경험 원리, 과정과 결과의 균형성 원리, 책임 이양 원리, 상호작용성 원리의 다섯 가지 원리에 의해 운영된다. 이 워크숍 중심의 교수 학습 모형은 과정과 결과의 균형잡힌 쓰기 교육과 학습자 중심의 의미있는 쓰기 경험을 강조함으로써 창의적인 국어 표현 능력과 자기 주도적인 쓰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핵심어】 워크숍 중심의 쓰기 교수 학습 모형, 쓰기 기능, 사회 구성주의, 생태학적 교실 환경, 다양한 접점에서의 글쓰기 경험 원리, 과정과 결과의 균형성 원리, 책임이양 원리, 비계, 상호작용성

<Abstract>

## **Development of Elementary Korean Language learning and instruction Model in writing**

**Won, Jin-soo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 elementary Korean Language learning and instruction model of writing based on the 7th Korean Language Curriculum. In developing the learning and Instruction model of writing, we mus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writing, factors of learner and teacher, recent writing theory and the goal of curriculum.

Learning and instruction model of writing workshop emphasizes publication of writing as an product through the actual writing performance of students. This model consists of the phases as like a pre-writing, writing, revision, editing, publication. In this process of writing, the guidance of teacher plays a very important role of scaffolding. This learning and instruction model of writing is running by 5 major principles-ecological learning and instruction environment, various experiences of writing, balanced process and product, gradual turning over responsibility to the students, and interactional principles. This learning and instruction model of writing can improve the writing ownership and creative expressive writing power of students by emphasizing student-centered meaningful writing experiences and balanced process and product.

**[Key words]** Learning and instruction model of writing workshop, principles-ecological learning and instruction environment, student-centered meaningful writing experiences